

#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속도 높인다

명현관 군수 “차질없는 추진” 주문  
2027년 준공 목표...기후대응 거점  
농업연구단지·과수지원센터 연계



입, 삼산면 평화리 일원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건립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남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남을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영향 예측,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총괄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센터의 조기 가동이 필요하다”며 “220회 이상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유치를 이끌어낸 만큼 다른 공모사업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은 센터 인근 100ha 부지에 농업연구 1·2단지 and 전남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남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는 해남·완도·나주 등지의 과수연구소를 통합한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한 과수 실증연구를 담당한다. 올해 3월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농업연구 1단지에서는 고구마연구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청년농 임대농장이 운영 중이며, 향후 스마트농업 실증장과 마늘 조직배양 시설, 교육·연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집하장, 기

업 연계형 실증단지 조성되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거점은 해남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대한민국 농촌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RE100 국가산단 유치 등과 연계해 해남을 미래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전남도,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공감대를 이끌고, 해남의 도약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해남=박필용 기자

## 완도호랑가시나무 해안 경관 숲 조성

郡, 해변공원에 5억 투입 151본 식재

완도군이 생활권 내 군목 식재 확대를 위해 해변공원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 해안 경관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월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군목을 동백에서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 바 있다.

완도호랑가시나무 해안 경관 숲 조성 사업은 총 5억원을 투입, 완도호랑가시나무 151본을 해변공원 일원(1.5km)에 식재한다.

사업 대상지인 해변공원은 '2023·2024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 장소로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머무는 휴게형 정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업을 통해 가로수길과 녹음이 우거지는 휴게 정원 등이 조성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관상 가치가 높고 지역명이 명명된 수목을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하고, 지역민들에게 숲이 함께하는 삶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1978년 완도에서 처음 발견돼 지명이 붙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둥근 잎끝에 가시가 있으며 가을철부터 열매가 익으면서 겨우내 붉은 열매를 맺고 있어 관상 가치가 높은 완도군의 향토 수종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 목포시의회, 미식박람회 음식판매 매출 부진 점검

상인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홍보 강화·지원책 마련 촉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15일 “전남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음식판매 부스 매출 부진으로 인한 상인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박효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관호·이형완·최지선 의원 등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매출 저조 ▲식재료 폐기 우려 ▲유료존 입점으로 인한 관람객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집중 확인하고, 박람회 운영 관계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홍보 강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남 12개 시·군의 1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2일간 총 1억7천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행사 초반 강우로 인한 관람객 감소, 일부 업체의 메뉴 경쟁력 부족, 과도한 식자재

준비로 인한 폐기 부담 등이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매출 회복과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임료 5천600만원 지원 ▲4천원 할인쿠폰 제공 및 이벤트 확대 ▲잔여 식자재 판로 연계 지원 등 긴급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미식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실질적인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초반 기상 여건과 운영상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목포시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전남도와 협의해 추가 대비책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정혜선 기자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성료

‘상사화’와 가을꽃 향연...38만여 방문

영광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38만여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상사화가 절정을 맞아 지난해 관람객 2만명 보다 방문객이 크게 늘며 가을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특히 대표 캐릭터 ‘상사호(虎)’가 포토존·굿즈·SNS 이벤트 등에 활용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영광을 상징하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주목받았다. 또 ‘상사화 꽃길 걷기’, ‘달빛야행’ 등 낮과 밤을 잇는 프로그램과 향토음식관, 특산물 판매전 등 풍성한 볼거리·먹거리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장세일 군수는 “상사화 절정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으로 더 즐거운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도고속철도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결의대회에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진도군 제공>

## “진도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해야”

300여명 기관·군민 참여 결의대회 개최

대통령 공약 ‘호남고속철 진도 연장’ 촉구

진도군이 ‘진도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 유치를 향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행사는 진도고속철도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진도는 제주와 가장 가까운 최

단 항로이자 육·해상 교통 연계의 최적지”라며 진도 고속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서부권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라”는 내용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군의회 의장, 박종은 공동추진위원장에게 전달됐다.

박종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모든 지자체에 건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진도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진도 연장’이 반드시 이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군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군민은 모두가 상주의 마음으로 임했으며, 제주 전례없는 해소를 위한 해저 송전선로 설치에도 희생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진도고속철도추진위원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남도 방문 건의 ▲학생 참여 글짓기·그림·편지 공모전 ▲군민 서명부 대통령실 전달 ▲전국 홍보활동 등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 영암군 “내년 봄에 쓸 농기계 지원 신청 하세요”

최대 500만원 한도 구입비 50% 지원

영암군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농기계(사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2026년 농기계 구입 상생투자사업’ 참여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군은 내년 봄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 가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조기 신청을 받아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 방법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농기계 구입 상생투자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내년 봄 농번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가을빛 강진 가우도

향락철 관광객 ‘복적’

전년 같은 기간비 35% ↑

가을을 맞아 강진의 대표 해양관광지 가우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9-10월 주말 기준 가우도 방문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5% 증가했다.

섬 곳곳에 퍼지는 금목서 향기와 함께 야간경관 콘텐츠, 질트랙·모노레일 등 체험시설 이용객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가우도는 ‘빛으로 물든 섬’을 주제로 야간경관 조명 시설을 리뉴얼해 새 단장을 마쳤다. 출렁다리와 해안 산책로, 모노레일 정류장 일대에 설치된 ‘12몬스터’ 야간조명이 켜지면 섬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물들며, 바다 위로 반사되는 불빛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SNS를 중심으로 ‘강진야경 명소’, ‘감성 데이터크로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와 가



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우도의 대표 체험시설인 질트랙은 하늘 위를 질주하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체험으로, 주말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9-10월 이용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모노레일 역시 가족 여행객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월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상승세가 가을 관광 수요와 맞물려 체험·휴식·야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우도의 매력에 부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가우도는 낮에는 트레킹과 체험, 밤에는 야경과 조명을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세대별 만족도가 높다”며 “계절별 테마를 반영한 관광 연출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